

5월 27일

등교수업이 이뤄집니다!

학교방역은 철저하게, 대응시스템은 촘촘하게

“선생님,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소원이예요.”

코로나19 사태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를 우리 상상이나 했을까요? 교육부는 다시 ‘등교수업’이라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학교방역은 더욱 철저하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시스템은 더욱 촘촘하게 준비합니다.

- 5월 20일 고3(우선 등교)
- 5월 27일 고2 / 중3 / 초1-2 / 유치원
- 6월 3일 고1 / 중2 / 초3-4
- 6월 8일 중1 / 초5-6

※ 고3,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함

- ✓ 방역물품 구비 특별소독, 마스크 비축, 체온계(학급당 1개) 구비, 일시적 관찰실 설치 등
- ✓ 자가진단(등교1주전) 가정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학생건강상태 온라인 설문(자가진단)제출
⇒ 학생건강상태 학교와 공유
- ✓ 진단검사 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 학생 간 접촉 최소화 학습 활동: 책상 재배치,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등
급식 운영: 배식시간 분산, 임시 칸막이 설치, 좌석 띄워 앉기 등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교육

vol.454 2020 MAY

10 삶과 교육

학생 인권·교권
모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시작점

36 정책을 말하다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에서 첫 출발

40 이슈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준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생활

친구와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후 최소 1m 유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요



밥을 먹으면서
말하지 않아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요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 콧물이 나오면
선생님께 바로 말해요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예방해요

-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아 건강을 확인합니다
- 주기적인 교실 환기를 실시합니다
- 교재, 교구, 출입문 손잡이 등은 매일 청소·소독합니다

Contents

21

특별기획

원격수업이 가져온 새바람 '교육혁신'

'이 시대의 교사는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미국 교육학자의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온라인 개학을 맞았고 전국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의 원격수업 시대를 열었다.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집단지성으로 대응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도전은 교육혁신이라는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원격수업이 가져온 변화를 비롯해 원격수업 경험담, 미래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등을 살펴봤다.



40

이슈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준비

교육부는 지난 5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순차적인 등교개학을 준비해 왔으나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일을 일주일씩 미룬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고3,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5월 20일(수) 우선 등교하며 고2/중3/초1~2/유치원은 5월 27일(수),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수), 중1/초5~6학년은 6월 8일(월)에 등교한다. 5월 14일 예정되어 있던 고3 학력평가도 5월 20일 등교개학 이후로 미뤄졌다.



Contents



Cover story



교육부가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등교 개학에
대비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사진은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 4월 28일 대구시 남구
대구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별기획

21 원격수업이 가져온 새바람 '교육혁신'

5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코로나 교육혁명'

에듀테크로 한발 앞서가는 교사들

[간담회] 미래교육 플랫폼, 원격수업 해봤더니...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그리고 새로운 도전

정책

35 더 넓고 깊은 정책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에서 첫 출발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준비

부산시교육청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04 **찰칵**
선생님

06 **꿈이 영그는 현장**
100% 온라인 강의 나선 대학들
기술 지원강의의 질 관리로 위기 대응

10 **삶과 교육**
학생·교사 인권
모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시작점

14 **교실혁명**
창의적 인재 만드는
진로+예술 융합프로젝트

18 **통계로 읽는 교육**
전문대학/대학의 분류와 학교 수 변화

36 **정책을 말하다**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에서 첫 출발

40 **이슈**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준비

44 **교육자치시대**
부산시교육청 _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47 **이달의 교육뉴스**
한국의 원격수업 사례, 해외 공유·전파 외

50 **교육포커스**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한 시대

54 **진로탐색**
핀테크 분야

56 **교육 소확행**
'소확행' 찾으러 갔다 '대확행' 하고 온
교생실습

58 **이야기 인문학**
5.16: 하나의 사건, 여러 개의 이름

60 **교사상담실**
도를 지나친 학생·학부모 민원, 어떡하죠?

62 **명예기자 리포트**
다함께 달리자! 광주 빛고을독서마라톤 외

발행일 2020년 5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양서연 주무관 박형민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책임)김혜진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지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그리워지는 날이 됐을 것 같네요. 아쉬움을 달래며 <행복한 교육>에서는 '선생님'을 주제로 독자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 감사합니다!



6월의 주제는 '슬기로운 학교생활'입니다.
eduzine21@gmail.com으로 많은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1983

2019

☞ 성완 남지고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평생을 초등교사로 교직에 몸담으셨고, 저는 현재 중등교사로 어머니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37년 전 엄마의 현장 체험학습 사진을 흉내 내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엄마를 똑 닮겠다고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 유연상 다정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6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아이들이 스승의 날을 챙겨준 모습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스승의 날에 손편지, 칠판 편지를 받으면 뿌듯해집니다.



☞ 한은경 양지고등학교 교사

집에서 딸아이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선생님께 직접 편지 썼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사진으로 찰카!! 메세지로 보내드렸어요^^



☞ 구영목 혜화병설유치원 교사

소싯적 우는 아이만 봐도 어쩔 줄 몰라 같이 울 뻔했던 나^^ 지금은 유치원 교사가 되어 유아들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함을 함께 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음박질하고 있다. 애들아! 사랑해♥

☞ 박현진 고덕초 5학년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선생님께 제가 만든 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요!



☞ 유지민 고덕중 1학년

작년 스승의 날 때 친구들과 함께 카네이션 협동화를 그려 칠판에 붙여놓고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입학식은 했지만 아직은 마음이 초등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멋진 중학생이 되게 해준 초등학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100% 온라인 강의 나선 대학들

기술 지원·강의 질 관리로 위기 대응

지난 4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초·중·고등학교에 앞서 대학가에서는 이미 3월 개강 후 전면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거나 온라인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대학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100% 온라인 강의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과 교수·학생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대학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글 양지선 기자

대학 10곳 중 6곳이 이번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거나 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4월 28일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45개교(23.3%)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비대면 강의를 이어간다고 발표한 72개교(37.3%)를 합하면 전체 조사 대상 학교 중 60.6%에 해당하는 117개 대학이 1학기 전체 혹은 무기한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는 대학에서 그다지 낯선 수업 방식이 아니다. 이미 많은 대학이 자체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활용해 수업 시청부터 과제 제출, 퀴즈, 성적평가 등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구현된다. 덕분에 온라인

개강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성균관대, '온라인 강의 신속 대응팀' 운영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학기 약 4,000개의 강좌를 자체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아이캠퍼스(i-campus)'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강의 확대를 위한 서버 구축을 한발 앞서 준비해온 덕에 이번 개강 이후에도 시스템상의 문제 없이 많은 수의 강좌를 운영할 수 있었다. 성균관대는 원활한 온라인 강의 진행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4월 6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온라인 강의 신속 대응팀'을 운영한다. 신속 대응팀은 교강사·학생의 온라인 강의 관련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콜센터다. 관련 부서 교직원과 행정 지원 조교 약 40명으로 구성되며 영상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교강사의

강의 콘텐츠 편집, 녹화, 실시간 원격수업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 강의는 교수진의 선택에 따라 실시간 수업이나 미리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형식 등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교내 'SKKU 셀프 스튜디오'를 이용해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고, 기자재를 대여해 연구실 등 외부에서 자체 촬영도 가능하다.

성균관대는 이번 학기에 한해 이수 가능 학점을 확대하고, 성적평가 비율도 조정한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학생들이 더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학부생에게 이수 학점을 3학점씩 추가로 부여하고, 수업에 따라 정원도 최대 20% 증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평가는 기존에 A+~B 등급 비율이 전체 수강생의 65%였던 것을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 _ 동명대 시미래교육스튜디오에서 온라인 강의 영상을 촬영 중인 이장기 광고홍보학과 교수
2 _ 성균관대 온라인 강의 신속 대응팀을 찾은 신동렬 총장(사진 우측 첫 번째)

66 이미 많은 대학이 자체 온라인학습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활용해 수업 시청부터 과제 제출, 퀴즈, 성적평가 등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구현된다.

99

동명대, 일대일 전화 멘토링으로 낙오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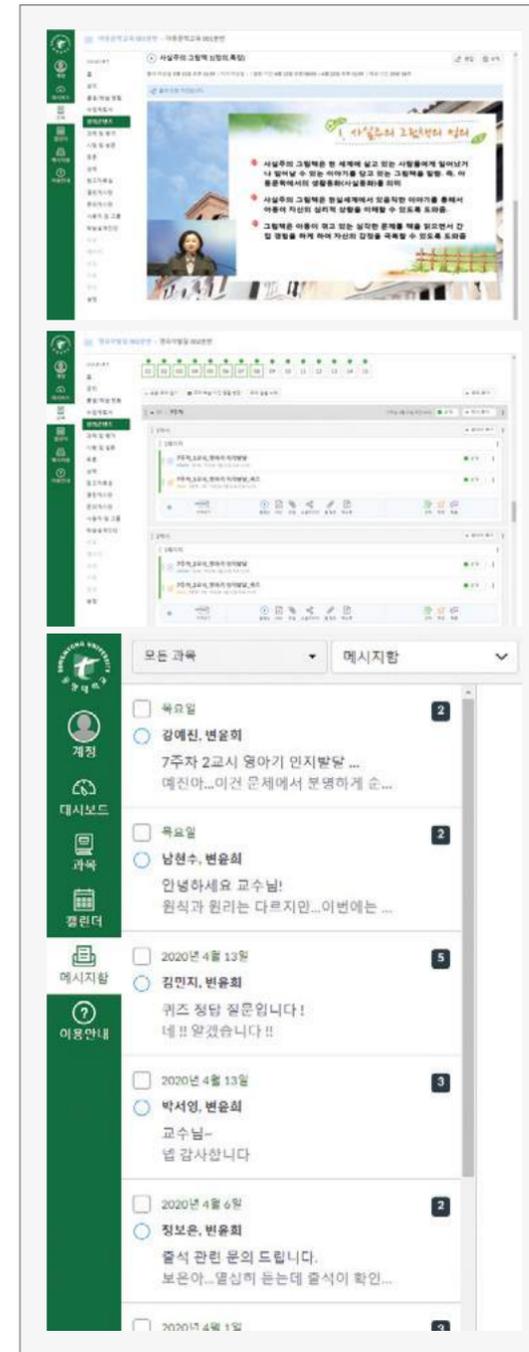
동명대학교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 개강에 돌입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목을 받았다. 개강 한 달 전 구축 완료된 자체 LMS(학습관리시스템) 덕분이다. 동명대는 대학혁신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ICBM 미래교육 오픈캠퍼스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다. 안정적인 서버 관리 시스템과 다양한 학습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 이번 학기 약 1,700개 강좌가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동명대 e러닝MOOC지원팀은 3월 한 달 동안 LMS 기술지원과 함께 교수 대상 연수를 진행하며 강의 질 관리에 나섰다. 교내 스튜디오를 통해 수업 영상 촬영과 편집을 지원하고, 동영상 제작 관련 교수법 특강도 이뤄졌다.

장애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107손말이음센터)와 협력해 자막과 수어 통역 서비스도 시행했다. 동명대 관계자는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고 맞춤형 학습 과제물 지원, 장애학생도우미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내 지원제도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또 20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일대일 전화 멘토링도 진행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전공과 대학 생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교수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캠퍼스 생활에 기대감이 컸던 새내기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이끄는 동명대만의 차별화된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이란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동명대는 이번 학기 성적평가에서 절대평가를 허용



하고, A학점을 50% 이상 주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간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일부 부실 강의에 대학생들 불만의 목소리도

이외에 삼육대학교는 원격수업TF팀을 구성해 서버 증설과 온라인 교육모델 개발, 영상 제작과 편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남대학교는 온라인 교수법 특강과 학생들을 위한 일대일 학습컨설팅을 운영하며 학습 질 높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온라인 개강을 맞이한 여러 대학의 선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박경태 씨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을 반복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도 “한 번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기 힘들고, 일부 교수는 녹화 강의만 업로드한 채 학생들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변윤희 동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예기치 않게 전면 온라인 강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다행히 잘 따라와 주고 있지만, 대면 강의처럼 모르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서 점차 토론이나 PBL방식 수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런 활동이 이뤄지기에 아직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①

3 _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강의실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4 _ 동명대 LMS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강의 시청과 과제 제출, 질문-답변이 가능하다.

학생·교사 인권

모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시작점

오동선

이리
고현초등학교
교사



전북 익산시 이리고현초교 오동선 교사는 20년 넘게 인권교육 실천가의 삶을 살고 있다. 인권교육에 관한 두 권의 책을 냈고, 올해도 '인권 친화적 학급 만들기'를 주제로 세 번째 책을 준비 중이다.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회적 참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와 지난 4월 21일, 학교의 텅 빈 교실에서 마주 앉아 인터뷰했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첫 문장이었다. 전북 익산시 이리고현초등학교(교장 양병중) 오동선 교사가 지난 20여 년간 연구하고 몰입해온 주제 또한 이 첫 문장에 기대어 있다. 1998년 교직에 몸담기 훨씬 전부터 인간답게 사는 권리, 곧 인권, 인권법 등의 가치에 내내 관심을 두었던 오동선 교사. 그런 그가 교사생활 내내 가슴에 품었던 질문이 하나 더 있었다. '사람으로서 가치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면, 교육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였다(이 질문은 그가 펴낸 책 <아이를 빛나게 하는 학교인권>의 부제로도 쓰였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야 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던 시기였다. 전북학생인권조례(2013년) 및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 그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달렸다. 현재 그는 이리고현초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전국 인권교육 교사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인권교육의 안착,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인권교육이 교육과정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때가 불과 10여 년 전이에요. 2010년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후 인권교육의 안착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직도 갈 길은 멀죠.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질적 편차와 인권의 불평등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이후 13개 시도에서 조례 제정이 담보 상태인 것에 크게 아쉬움을 느낀다는 그다. 더욱이 교육정책의 기본이념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태도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단다. 그런데 인권교육 영역에서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교사다. 우리의 교육환경이 학교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시스템을 안고 있어서란다. 이에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인권 감수성은 학생들에게 인권의 기준점으로서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확신한다. “이미 조례의 구속력이 발휘되는 지역에서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피해 해소와

관리구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반면, 조례 제정이 제자리걸음인 지역에서는 소극적이거나 기초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기에 안타까운 게 현실이지요.”

오 교사는 인권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미진함이 있다고 말한다. 계기수업과 같이 일 년에 한두 차례 시행되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일회성,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학급 자치회에서 학생들 스스로 ‘인권 친화적 학급의 생활규정’을 만든다거나, 친구들과끼리 인권침해 발언하지 않기 등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활동 등은 모범적인 실천사례로 꼽힌다. 또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활동 등도 그가 손꼽는 우수 실천사례들이라고.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실행하면서 배운 경험들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 학생들의 인권의식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 대립이 아니라 공존이지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지역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차별·인격권 침해·성 인식 관련 피해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의 경우 신체접촉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대신에 언어폭력과 간접차별 등의 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죠.”

학생들의 인권침해 유형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그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핀셋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의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려는 미디어의 역할에도 책임이 크지만, 그 교정의 책임 일부는 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그는 말한다.

“인권교육이 학교정책의 토대로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오 교사는 올해 초,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들을 연구 분석한 논문(제목: ‘학생 인권침해 사례분석을 통한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 교사가 공동대표를 맡은 ‘전국 인권교육 교사 네트워크’는 올해로 출범 3년째를 맞았다. 전국에서 인권에 관심을 둔 10개의 인권교육 교사연구모임이 함께 모여 활동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의제는 교사 인권문제. 오 교사는 “이제까지 인권적 측면에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라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의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 모두 ‘인간에 대한 존중’이 그 시작점이기 때문이란. 그러면서 오 교사는 “매 학기 방학이 시작되면 학기 중에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인권교육의 최종목표, 따로 교육하지 않는 것”

오 교사는 교육부에서 위촉한 ‘교과서 인권 분야 검토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참여한 결과 “교과서 속 인권의식이나 표현이 예상보다 양호한 편이라 놀랐다.”라며 그는 웃었다. 그는 또 “집필진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눈에

1_ 학급자치활동, 리더십 캠프 수업 속에서 스스로 실행하면서 배운 학생들의 인권의식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자란다.
2_ 인권교육에 관심을 둔 10개의 인권교육교사연구모임은 3년째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촬영된 사진임. 사진=오동선교사 제공)



학생 · 교사 인권

띄게 달라졌고, 또 검토진들의 의견 반영률도 점진적으로 높아졌다.”라면서 “인권에 대한 촘촘한 거름망이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교과서에 실리는 삽화 한 장면도 인권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했죠. 일례로 삽화에 그려지는 장애인의 모습들도 ‘배려’의 대상에서, 이제는 비장애인들 속에 섞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방향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국 인권교육 교사 네트워크’ 공동대표로서의 꿈은 지역별 조례 제정이 한두 곳 더 늘어나는 것. 그리고 각지의 인권교육 우수사례들이 전국으로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학교 공동체의 인권의식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하여 꽃피우는 날을 꿈꾼다고 했다. 오 교사는 “인권교육의 최종 목표는 결국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라면서 “인권교육이 학교정책의 토대로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2

창의적 인재 만드는 진로+예술 융합프로젝트

미술 교사로서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융합 수업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그동안 융합 수업의 형태는 다양하게 바뀌었고,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융합 수업의 매력을 전하고자 한다.

글 노진영 과천고등학교 교사



융합교육은 모든 교과가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고, 어떤 교과든지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융합교육은 교육내용을 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을 통한 교육방법의 융합과 학습자 내 또는 학습자의 혼합구성을 통한 교육대상의 융합도 융합교육의 영역에 포함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참관하며 동료 교사와 함께 융합 수업을 위해 대화하고 노력했던 그 순간들은 지금까지 융합 수업을 하게 된 원동력이다.

교과 간·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연계 융합 수업은 학교 학사일정, 타 교과 진도 등에 따라 2주나 한 달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다. 전체 수업을 온전히 융합 수업으로 재구성하고 싶었던 나에겐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융합 교육으로 재구성하여 융합 교육의 다양한 형태들을 학생

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융합능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교과 내 융합 수업의 형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타 교과를 선택하고 교과 모둠원과 함께 연구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수업부터 시작했다. 현재는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대상의 융합을 복합적으로 시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융합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의 평소 관심사와 예술을 접목한 모둠 활동

2015-2018년 진행한 ‘소통+공감+성장하는 통(通)·감(感)·자(自) 예술융합 프로젝트’는 학교,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반 고등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의미 있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비슷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 융합 모둠을 이루고 평소 자신의 관심사와 예술을 접목하는 예술융합 모둠 프로젝트를 했다.

다양한 과목에 지식이 있는 모둠원들이 융합되어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해가는 교육대상의 융합과 교과 내, 교과 간, 마을공동체, 동아리를 융합 주제로 한 교육내용의 융합, 그리고 프로젝트학습, 협동학습, 모둠학습, 액션러닝(action learning) 등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한 교육방법의 융합 경험을 통해 미래에 다른 분야 학생들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미학적 융합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차시별로는 예술융합 모둠 구성-나를 표현하는 진로파일 디자인-모둠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미술과 타 교과 융합 탐구-미술로 보는 나의 삶, 우리 마을(동네 간판 탐구, 굴다리 벽화 조사)-여러 가지 표현 기법으로 삶, 마을 표현(교내 설치 미술, 벽화 제작) 순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예술융합 모둠은 융합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1대1 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계열이나 좋아하는 과목 1·2·3 순위를 담당 미술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사전 설문조사(좌우뇌선호도(BPI) 검사, 정서지능(EQ)검사, 입학성적 참고)와 희망계열을 활용하여 모둠을 구성한다. 융합모둠 안에는 좌뇌 성향, 우뇌 성향, 양뇌 성향의 학생들이 고루 섞여 있고, 되도록 희망계열 학생들이 끼리 모이게 하여 자신의 관심사와 예술을 깊이 있게 융합하여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융합주제는 미술창작 교과서와 타 과목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추출했다.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음악, 체육, 한문 등의 교과서를 분석

12_ 교내 벽화 제작으로 학교 공간을 바꾼 활동

3_ 관심사가 비슷한 4-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해 자신의 진로와 예술을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기른다.



66
나의 꿈을
예술로 표현하고
전시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99

하여 미술과 관련 있는 페이지를 체크하고, 각 과목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 모인 융합 모둠에 안내하여 프로젝트 주제 선정과 탐구 및 제작 시 도움이 되도록 했다. 타 과목 교과서를 매 미술시간마다 각 과목 해당 융합 모둠에 비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스마트폰을 켜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컴퓨터실도 적극 활용하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

지역연계 융합프로젝트로 확장

지난해에는 교실을 넘어 학교·예술가·마을(사회)의 파트너십 교육과정이 이뤄진 ‘아-싸(S-A-A)! 학·예·회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술 교사로서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미술을 자유롭게 융합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미술을 삶 속에서 즐기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School)+전문예술인(Artist)+지역예술전문가(Area)(S-A-A)’가 함께 협업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만나게 된 지역 예술인 5인과 코티칭(co-teaching) 수업이 이뤄졌고, 이들은 지역연계 융합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4~5인의 학생들이 융합 모둠을 이뤄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나의 꿈을 예술로 표현하고 전시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은 스페이스K, 과천시민회관 갤러리 마루, 교내 Art exhibition space 등 총 3개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이를 통해 학교, 지역사회,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45_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 과자로 만든 집에서 하늘을 보며 여유를 누리는 아이들(사진 4)과 재활용품으로 만든 악기(사진 5)

6_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은 학교와 지역 내 갤러리에 전시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예술융합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교육내용·교육대상·교육방법의 융합을 통해 학습자의 예술+α의 교과지식 향상과 융합태도를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 예술융합 모둠별로 미술 과목에 타 과목 지식을 자유롭게 융합하면서 미술 수업에 대한 인식이 변했고,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열심히 참여하고 즐거워하여 수업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에 미술을 융합하면서 미학적 융합 인재로서의 창조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교사의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융합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서 타인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



6



4

전문대학/대학의 분류와 학교 수 변화

글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대학과정은 35년간 많은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일반대학과 통폐합한 결과, 142개에서 228개로 60.6%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서 구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총 7가지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같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고등교육 기관을 나누기보다는 흔히 수여되는 학위에 따라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대학원과정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대학과정에는 일반 대학 외에도 ‘기능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언급된 사이버대학 중에서도 2개 대학은 전문대학과정을 가르치며,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근거한 한국농수산대학도 전문대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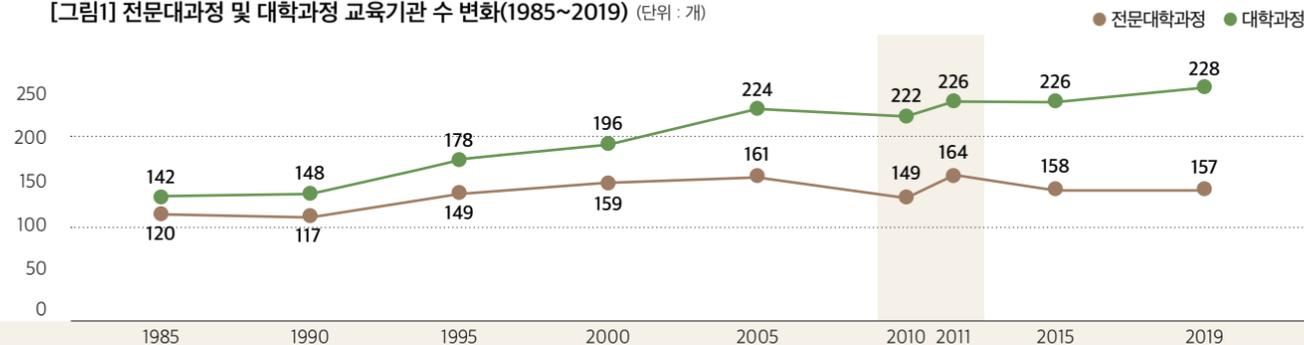
대학과정에는 일반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되며, 원격대학 중 1개 방송통신대학과 17개 사이버대학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은 모두 대학과정으로 분류되며, 2019년을 기준으로 기술대학과 각종학교의 경우 전문대학과정을 다루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모두 대학과정으로만 분류된다. 또한, 개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의 특수 목적 학교는 대학과정 통계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그림1]과 같이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문대학과 대학의 수는 지난 3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물론 전문대학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그리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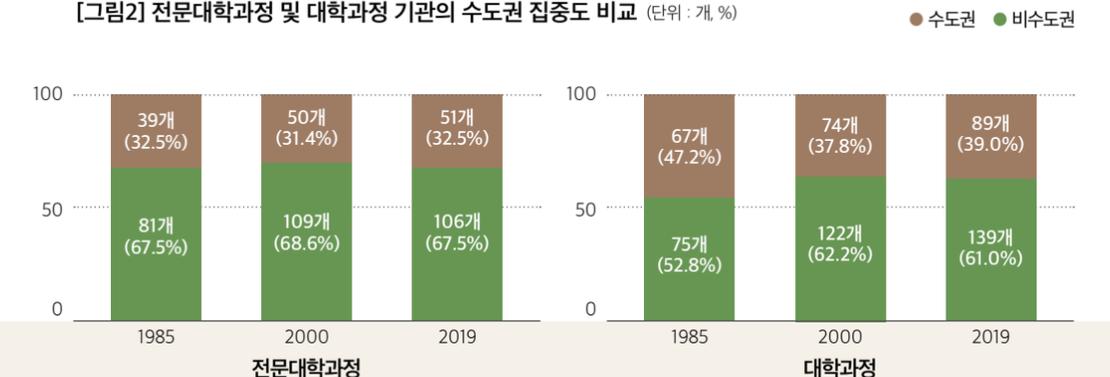
감소하지만, 1985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120개에서 157개로 37개교(30.8%)가 증가했다. 대학과정의 기관 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미미한 수준의 감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그 숫자가 감소한 적은 거의 없으며, 1985년에서 2019년 사이의 증가율 역시 60.6%(142개에서 228개)로 전문대학에 비해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신설 기관 수 증가와 많은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일반대학과 통폐합한 결과이다. 최근의 추세만 보았을 때, 전문대학과정 기관 수는 2011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149개에서 164개) 지난해까지 점증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학과정의 경우 2011년 이후 기관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두 기관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림2]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문대학과정 및 대학과정의 기관들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지를 1985년, 2000년, 2019년 시점으로 비교한 것이다. 사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인구집중의 원인을 양질의 직장 및 교육기회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특히 4년제 일반대학)의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림2]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이후 이와 같은 정책은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수도권의 대학과정 기관의 집중률은 47.2%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그 비율이 37.8%로 약 10%p 감소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0여 년 지난 오늘날에는 그 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전문대학과정의 기관 집중률은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㉞

[그림1] 전문대학과정 및 대학과정 교육기관 수 변화(1985~2019) (단위: 개)



[그림2] 전문대학과정 및 대학과정 기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단위: 개, %)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교육현장 및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국형 원격교육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 ✓ 온라인개학 3주, 교육 현장 교사의 진단 및 제언
- ✓ 학부모 의견 청취
- ✓ 미국 Stratford School의 수업 사례 및 향후 원격수업 추진 방향
- ✓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한국형 원격교육 구축 방향

"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



원격수업이 가져온 새바람

'교육혁신'

대한민국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온라인 개학을 맞았고 전국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의 원격수업 시대를 열었다.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집단지성으로 대응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도전은 교육혁신이라는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22 5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코로나 교육혁명'
- 24 에듀테크로 한발 앞서가는 교사들
- 28 [간담회] 미래교육 플랫폼, 원격수업 해봤더니...
- 32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그리고 새로운 도전





5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코로나 교육혁명’

글 강용철 서울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66 이 시대의 교사는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99 미국의 교육학자인 앤디 하그리브스(Andy Hargreaves)의 말로, 요즘 교육 저널이나 교사 연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그리브스가 2020년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을 봤다면, 이 말의 증거를 명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고,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도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역사에 길이 남을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을 ‘2020 코로나 교육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원격수업 이야기를 5개의 키워드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본질이자 교육적 신념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원격수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공부하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플랫폼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회의를 하며 동료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안을 찾기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innovation 혁신 등교 개학, 대면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원격수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인프라를 모색하고, 교육청과 관계 기관들은 원격수업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는 자체 연수, 워크숍, 모의 수업 실연 등으로 혁신 그 자체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EBS, e학습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네이버, 구글, MS 등과 같은 플랫폼을 연구하며,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belief 신념 만약 1990년대나 2000년 초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학생들이 장기간 등교하지 못했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학습지를 제작하여 인쇄하여 집에 우편을 보내거나 배달을 했는지 모릅니다. ‘학생을 생각하고,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위한 원격수업의 노하우와 전략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사 역량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trust 신뢰 가정, 학교, 교육기관 등 교육공동체는 손을 잡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어두운 길을 한 걸음씩 전진해 왔습니다. 전국 단위로 빠르게 준비되고 진행된 원격수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갈등을 느끼기도 했지만, 서로를 믿는 신뢰의 약속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조금씩 반올림됐다고 믿습니다.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가정과 학교,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서로를 믿고 지지했던 마음은 원격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진행된 원격수업이지만, 학생과 교사가 신뢰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공감했기에 창의적인 수업 활동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cooperation 협력 원격수업을 위해 민-관-학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는 점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IT 정보통신 업체들의 기술적인 지원, 지명도가 높은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및 망 제공, 교육 유관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협업! 이런 거시적인 협력 외에도 새롭게 알게 된 방법을 동료에게 소개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한 교사들, 학급 커뮤니티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한 사람이 열 발자국이 아닌, 열 사람의 한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introspection 성찰 ‘처음 가는 길’이기에 시행착오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라고 여기며 가볍게 넘기지 못할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교육 당국의 선제 대응과 문제 해결 메뉴얼의 효과성 진단,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 법규와 행정적인 지침에 대한 점검, 원격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안내 시기와 내용의 적절성 판단, 원격수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수렴 방안 모색, 시스템 접근과 에러 발생의 대응, 초상권, 저작권 및 원격수업 중에 발생한 교육 문제의 해결 등을 다시 차분히 복기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원격수업이 교육현장의 큰 화두로 대두된 지금, 우리는 다시 작은 부분부터 돌아보며 냉철하게 반추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속도만큼 우리의 방향이 적절했는지 성찰하며 미래형 교육모델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격수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시의 문구로 마무리합니다. ②

○.....○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도중환의 시 ‘담쟁이’ 중에서
 ○.....○



에듀테크로 한발 앞서가는 교사들

“위기를 기회로”... 원격수업에서 발견한 미래교육

지금 현장에서 교육혁신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교사들이다.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맞닥뜨린 이들은 에듀테크를 활용하며 미래교육을 향해 그 누구보다도 한발 앞서 나아가고 있다.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열혈 교사들의 원격수업 도전기를 소개한다.

글 양지선 기자



4월 23일 오전 10시, 진월초등학교(교장 백경숙) 5학년 3반 교실에서는 신민철 교사의 사회 교과 원격수업이 한창이다. “우리나라 남쪽 끝 국토는 어디일까?” 신 교사의 말에 화면 속에서 “제주도!”라고 답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신 교사는 지도를 클릭해 원격화면으로 학생들과 공유한다. “제주도 밑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어. 여기가 우리나라 최남단이야. 다들 보이지?”

신 교사는 실시간 상호반응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이날 배우게 될 내용의 문제를 미리 만들어놓고, 해당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공유해 퀴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구글 문서를 통해 ‘내가 가고 싶은 우리나라 영토의 끝과 그 이유’ 적기, 오늘 배운 점을 채팅창을 통해 한 마디씩 남기기 활동으로 수업이 마무리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임에도 교사와 학생 간 거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올해 5년 차 교사인 그는 온라인 개학 이후 하루 한 시간은 화상으로 아이들과 만난다. 학습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며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12_ 신민철 교사와 이제창 교사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온라인 원격수업도 문제없이 해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온라인 가정학습 사이트 ‘학교가자.com’의 초등 부문과 중등 부문 기획 총괄을 맡고 있다.

66
온라인 개학을 겪으며
에듀테크가 미래교육의
훌륭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99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학교가자.com’

신 교사는 앞서 개학이 늦춰지자 아이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 학습 사이트 ‘학교가자.com’을 만들었다. 그가 소속된 에듀테크 연구회인 ‘GEG(Google Educator Group) 대구’ 교사들을 주축으로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도움을 보냈다. 사이트 구축부터 콘텐츠 구성까지 오직 교사들의 힘으로 완성된 프로젝트다. 오픈을 준비하며 매일 새벽 3시에 잠이 들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지와 열정이 그를 비롯한 교사들을 움직이게 했다.

3월 2일 오픈한 홈페이지에는 매일 학년별 학습자료가 탑재됐고, 오전 11시마다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라이브 방송도 진행됐다. 4월 20일부터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학년별 주당 시수에 맞춘 콘텐츠와 함께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주간학습계획 자료를 제공했다.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학교가자.com’의 콘텐츠를 수업 시간에 보조 자료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 교사는 앞으로 ‘학교가자.com’을 모두를 위한 교육 커뮤니티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학교가 문을 닫을 때 언제든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어갈 예정이다. “온라인 개학을 겪으며 에듀테크가 미래교육의 훌륭한 도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두의 에듀테크가 될 수 있도록 선배 교사들을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 제가 가진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수업을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동아리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상 無'

같은 날 오후 3시, 영남공업고등학교(교장 김봉준) 화학공학과 교실에서는 이제창(국어) 교사의 동아리 수업이 이뤄진다. 화면 속에 있는 학생들 대신 빈 책상은 동료 교사들이 채웠다.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는 이 교사의 수업 운영방식을 배우러 온 것이다. 특히 일반 교과목이 아닌 동아리 수업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이 교사의 수업에 주목했다.

이제창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도 정규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 개학이라고 해서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10년째 운영 중인 교내 글쓰기 동아리에는 온라인 개학 중에도 15명의 학생들이 신청했다.

원격수업으로 이뤄진 동아리 첫 시간의 주제는 ‘글쓰기 부담감 떨치기’. 화면을 통해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 교사는 수업 도구로 구글 문서를 활용했다. 각자 쓰는 글을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볼 수 있고, 맞춤법이나 교정부호 고치기 등 피드백도 쉽기 때문이다.

원격수업에서 힘들 거라 생각했던 조별 활동도 가능



했다. 4명씩 조를 짜 순서대로 앞서 사람이 쓴 문장에 살을 붙여 더 긴 문장을 만들어가는 ‘피라미드 글쓰기’ 활동이 이어졌다. 처음으로 이뤄진 생소한 방식임에도 학생들은 무리 없이 수업을 따라왔다. 수업을 지켜본 지한구(국어) 교사는 “등교 개학 이후에도 온라인상의 도구나 콘텐츠를 활용해 더 질이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에듀테크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수업 구상에 도움이 됐다.”라고 했다.

동료 교사와 원격수업 노하우 공유, 자체연수도 실시

이제창 교사는 온라인 개학 이전에도 이미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해왔다. 그는 “기존에 글쓰기를 지도할 때 학생이 출력해온 글을 빨간펜으로 그으면서 일일이 첨삭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아리 수업

이외에 1학년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그는 EBS 온라인클래스와 구글 클래스룸, 쌍방향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민철 교사와 같은 연구회 소속인 그는 ‘학교가자.com’ 중등부문의 총괄 기획을 맡고 있다. 초등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진 후 중등에서도 수요가 생기자 ‘중등팀’을 새롭게 꾸리고 사이트 구축과 독서관련 콘텐츠 개발을 맡았다. 초등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흥미 위주의 콘텐츠라면, 중등은 공통과목 위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했다. 내용은 교수학습과정에 따라 도입-전개-정리-보충-심화 단계별로 이어지고,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도 집어넣었다. 배운 내용을 평가하고 즉각적으로 채점 결과도 볼 수 있는, 온라인이기에 가능한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 교사는 이번 ‘학교가자.com’ 프로젝트를 “온라인상의 교육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표현했다.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자발적으로 모여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며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구글 클래스룸 연수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원격수업 운영 팁을 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아직은 빠른 변화가 낯선 동료 교사들을 다독이고 이끄는 역할도 맡고 있다.

미래교육을 향한 변화의 중심에 선 그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해 지식과 개념을 학습하는 수업이 이뤄질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교사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을 민주시민으로 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미래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②

- 3_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신민철 교사. 아이들과 화상으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4_ 이제창 교사의 원격수업 운영방식을 배우러 온 동료 교사들이 빈 교실을 채웠다.
- 5_ 쌍방향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하는 모습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온라인 간담회

미래교육 플랫폼, 원격수업 해봤더니...

4월 20일 초등 1~3학년 온라인 개학을 마지막으로 전국 초·중·고 540만 명의 학생이 원격수업을 받고 있다.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을 맞닥뜨리며 일선에서는 혼란도 있었지만,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 이후 교사들은 집단지성을 모아 원격수업에 빠르게 대비하는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행복한 교육>은 교사·학부모와 함께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경험담을 공유하고, 향후 원격수업의 장점을 접목한 미래교육 실현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대승

양산희망학교 교사



이명주

문태고등학교 교사



하현우

구미여자고등학교 교사



안지민

세종한결초등학교 교사



박선미

고2·중2·유치원생 학부모

Q 온라인 개학 이후 학교 차원에서, 또 선생님들은 각자 어떻게 수업을 준비했나.



안지민

원격수업 시범학교이다 보니 온라인 개학 이전에도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을 경험한 교사가 많았다. 현재 고학년은 실시간 수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학년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고려해 교사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 과제와 함께 매일 탑재하고 주 1~2회 실시간 수업으로 학습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이명주

모든 선생님들이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고 구글 클래스룸과 EBS 온라인클래스를 병행하면서 정규 시간표대로 운영하고 있다. 각 교실에 와이파이기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고3 학생들은 특별히 EBS 수능특강을 활용하는 과제를 내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석률은 95% 이상으로 순조롭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



하현우

학교에서 학생 개인별 시간표, 과목 선택, 원격수업 등의 기능이 지원되는 학사 운영 홈페이지(백합누리)를 발 빠르게 개설했다. 교사마다 선호하는 매체가 달라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백합누리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대승

수업은 시간표에 따라 매 차시 교과별 동영상과 학습지를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쌍방향 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개별 학습지원을 위해 매주 학습꾸러미를 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하며, 희망 시 직접 학생의 가정에 찾아가서 수업하는 긴급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원격수업의 어려움

Q 원격수업 초창기 서버가 다운되어 준비된 수업을 못 하는 일도 있었다. 원격수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



안지민

초등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낮고, 아직 스마트 기기 접근이 어려워서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 자녀들은 늦은 저녁에 활동하고 과제를 제출하기도 해서 선생님들이 집에 가도 퇴근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명주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기본적으로 원격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들이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디지털 기기가 부족해 학교 정보실에서 대여하거나 도교육청에 요청해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받을 수 있었다. 원격수업에서는 초상권 문제도 염려되었다. 최근 학생들이 원격수업 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올려 문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저작권 교육과 더불어 원격으로 수업할 때 교사와 참여 학생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들과 라포 형성이 어렵다는 점도 있었다. 학급별 사진첩을 미리 출력해 얼굴을 익히고, 원격수업 첫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다.



박선미

학부모 입장에서선 우선 기술적 문제가 컸다. 서버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과제 업로드가 안 되는 등의 문제로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다. 주변에서는 '중하위권 아이들이 과제를 이해하며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도 심해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66

초임 교사와 경력 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협동하며 배워 나가는 학습 붐이 일었다.

99

예체능 과목처럼 대면 교육이 필요한 교과에서는 어떻게 수업하고 있나.

하현우 예술의 철학, 미학적인 측면을 다룬 콘텐츠를 교사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고, 느낀 점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을 주로 진행한다. 또, 개인별 촬영 수행과제를 제시하고, 개별 피드백을 해오고 있다. 예체능 교과목의 특성상 학생의 수행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에서의 실기지도가 필수적인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 아쉽다.

이대송 특수교육에서는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일반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장애학생도 콘텐츠에 자막이나 수어, 점자 등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다. 본교 학생 179명 중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은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발달장애 학생은 대부분 정보기기 활용 경험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정보 교과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니 환경적으로도 열악하다. 특수학교는 개별화 교육이 이뤄지는데, 아이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 교육과정을 만들기가 힘들었다.

원격수업 평가계획

원격수업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하다.

안지민 원격수업 중에 제출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이 아니며, 출결 여부만 확인한다. 등교 개학 후 아이들의 학습을 점검하며 수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현우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실시간 수업 중 이뤄져야 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발표, 토론 등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과목별 성취 수준과 개인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성취기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라 참 어려운 일이다.

교사의 역량 강화와 미래형 교육

원격수업은 교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원격수업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또, 앞으로 원격수업의 장점을 접목한 미래형 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육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명주 초임 교사와 경력 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협동하며 배워 나가는 학습 붐이 일었다. 교과를 초월하여 서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원격수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교육문화를 바꾸고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교원 역량 강화, 학생·학부모 인식 변화 및 교육 등을 꾸준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원격수업 플랫폼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대송 전국 특수교사들의 정보 활용능력이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았을까.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인데, 직접 경험하고 보니 '생각보다 할 만하다', '장애학생들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원격수업을 계기로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취약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특수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개정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정보 교과가 필수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박선미 정부 차원에서 먼저 서버 과부하, 인터넷망 구축, 보안 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초상권, 사생활침해 등 온라인 예절 교육,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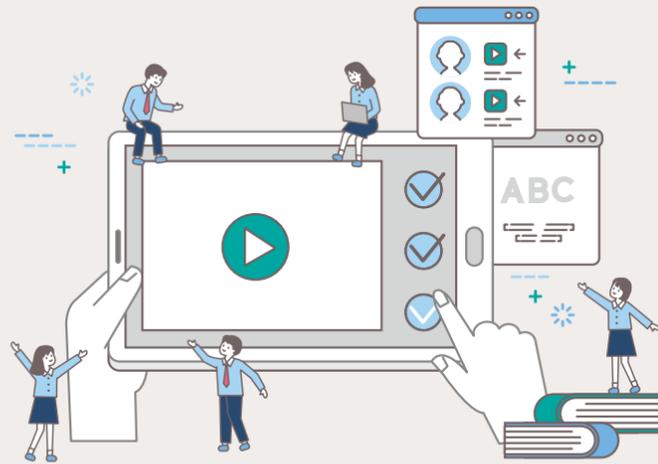


사회
이순이 편집장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그리고 새로운 도전

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그동안 미래 역량 강화 실패, 잠자는 학생, 학습 무관심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하면서 오프라인 교사 중심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었다.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가상·증강 현실 등을 활용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 인공지능 학습조교나 멘토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개인 맞춤형 개별화 학습 지원 등 에듀테크 기반 온라인 학습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그런데 5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바로 교육 약자들의 학습결손 심화 문제이다. 아울러 온라인 학습의 학습 효율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교육 약자란 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 자녀, 학습장애아

를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학습 흥미도가 낮은 학생·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의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생, 그리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등 인간(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원격수업을 통해 제대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의미한다.

교육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줄이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면 차제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원격교육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인류역사상 첫 도전 중에 나타난 혼란과 부작용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격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교육과 인간의 본질 및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의한 격차는 에듀테크가 뛰어난 인간(바이오컴) 교사 수준으로까지 발달하거나 학생의 뇌를 직접 조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에서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우선 급하게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모두 관련 기기들을 대여했다. 대여가 완료된 이후에도 교육청 단위의 지원 태세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원격 수업 기기 및 접속에 의한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 시도로 인해 향후 여건 미비에 따른 격차는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에듀테크 수준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여건 격차에 의한 것보다 교사와 부모의 도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라인 학습격차가 더 크다. 에듀테크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 열의를 가진 학생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하지만 학습 의욕이 없는 학생을 학습하도록 이끄는 것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교육 약자들이 제대로 학습하게 하려면 아직까지는 학교·교사 및 학부모의 접촉 기반 지원 시스템 구축, 이들의 지원 열정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 부모가 직접 온라인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 온라인 학습 관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부모의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교육 약자를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대면·비대면으로 도울 프로그램과 인력을 추가로 마련해야 학습결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문자·음성·화상 접촉을 통해 교육 약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직접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알려 이 학생들이 인간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등교 이후에도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생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스마트로그(smart+ analogue)형 수업 및 학습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 섬세하게 교육 약자를 배려하고 투자해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이란 학습자가 직간접 경험을 통해 뇌를 새롭게 구성해가는 활동이다. 교육이란 학생들의 뇌 재구성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번 온라인 학습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교사들이 단순히 학생들의 지식 관련 활동만 지원만이 아니라 지적체를 포함한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었음을 절감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교육 비중이 더 높아질 경우, 이번 도전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잘 새겨야 온라인 교육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더 섬세하게 교육 약자를 배려하고 투자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학계와 교육부(청)가 사상 초유의 도전을 잘 기록하고 분석하여 교육과 학교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이 양자를 결합하기 위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를 도출하는 데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교육계·정부·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그형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끌어낸다면 우리 교육(K-edu)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지구인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흥익인간을 하게 될 것이다. ②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추진계획 발표

학부모님들, 이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세요~**

안전한 등하굣길이 만들어 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합니다!

- 20년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행안부 등 협업)
* 초등학교 구간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22년까지 총 652억원 투입
- 스쿨존 내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설치 ('22년까지 총 1,000교 설치 추진)



학교 안팎으로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됩니다.

- 학교 내 보행로·차도 분리 사업(4,368교, ~'22년)
- 교육부-행안부-지자체, 학교 밖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학교의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부지교환 등의 방식으로 추진



어린이통학버스, 보다 철저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조기교체(차령 11년 이상) 추진 및 철저한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위치알림 서비스 실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및 위치정보 제공
- 학교 통학버스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교통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내실화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위험상황 및 사고유형별 예방교육 실시
-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 School Bus) 활성화
안전한 등·하교 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동안전지킴이 등 투입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해설하고
교육계의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더 넓고 깊게 소개합니다.

더 넓고 깊게 정교이책



- 36 정책을 말하다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에서 첫 출발
- 40 이슈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준비
- 44 교육자치 시대
부산시교육청 _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 47 이달의 교육뉴스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에서 첫 출발

적성·진로 따라 과목선택·취업 설계하는 미래교육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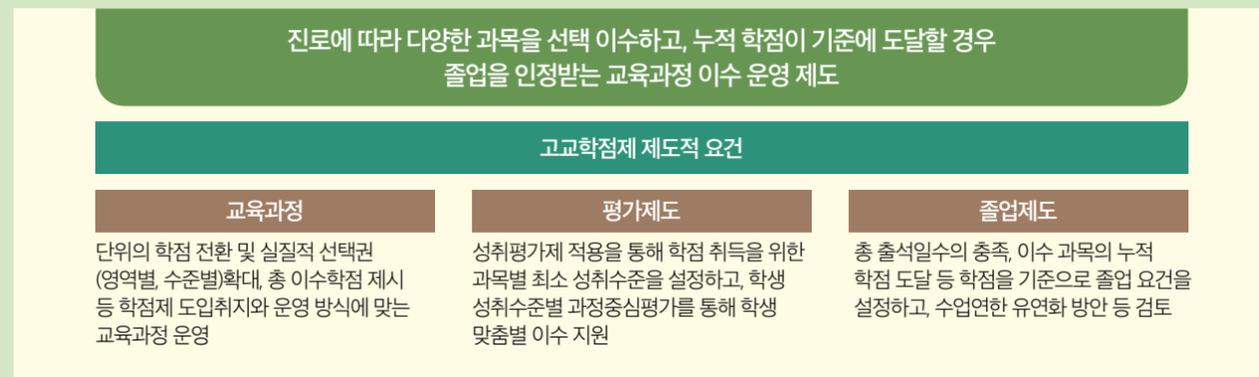
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마이스터고 학점제의 특징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정책연구 및 연구·선도학교 등을 통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정책적 전략과 현장의 노하우를 지속해서 축적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51개 마이스터고는 올해 선도적으로 학점제를 본격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에 모든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되기까지 학교가 더욱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정해나가는 ‘숙성형’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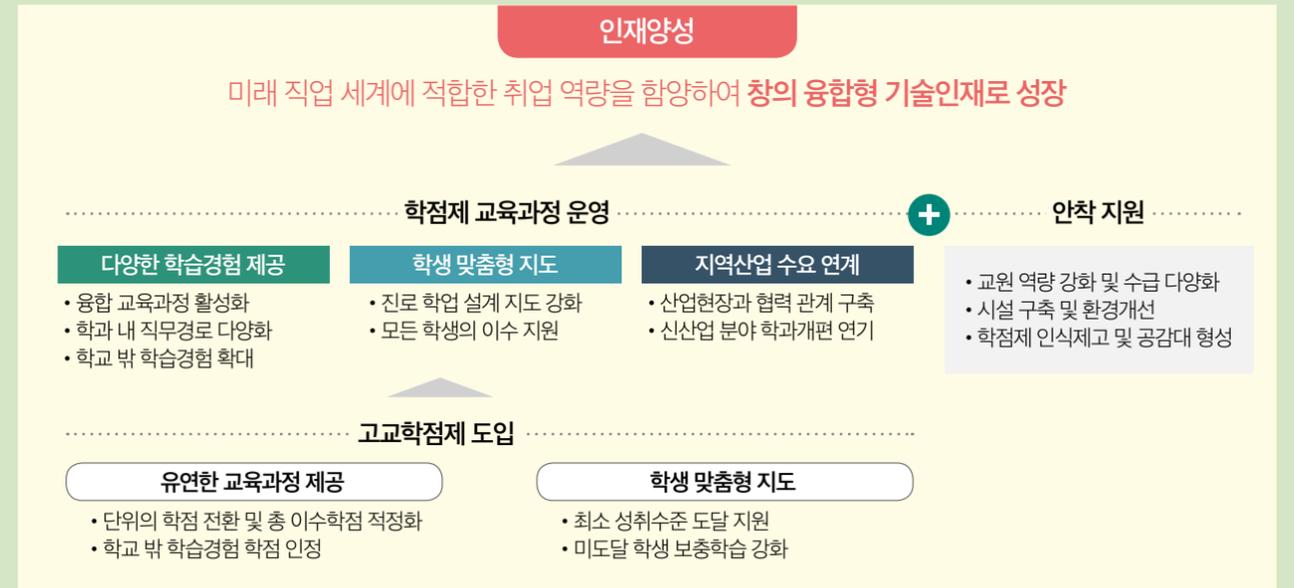
마이스터고는 자율학교로서 일반고에 비교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높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실습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고, 산학겸임교사와 같은 풍부한 외부 전문 교수자원이 교육에 참여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이 직접 연계된 마이스터고는 학점제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수요를 더욱 민첩하게 학교 교육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마이스터고는 고등학교 중에 가장 먼저 학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번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미래 직업 세계에 적합한 취업 역량을 함양하여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그림1] 고교학점제 기본 개념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20:4).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안내서'

[그림2] 마이스터고 학점제의 비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9.8.21.)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로 다시 도약하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는 학생선택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여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학생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다양한 선택과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같은 학과 내에서도 더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선택하여 세부 전공코스로 심화 이수할 수 있으며, 타 학과 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또한,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못한 경우 다른 학교에 개설된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으며, 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신산업 분야의 과목 개설이 어려울 때 학교 밖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마이스터고는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책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는 과목별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교육활동을 한다.



학점제의 선제적 도입, 직업교육의 메카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학점제를 적용받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은 이전보다 학과 내 세부 전공, 타 학과 부전공, 학과 간 선택과목 운영 등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스터고가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미래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스터고는 학점제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명실상부한 직업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학점제를 통한 직업기초능력 신장과 심화·융합형 실무교육으로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등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고졸 취업 문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림3]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전후 신입생 교육과정 비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0.3.2.)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부터 출발점'

지원방안

마이스터고 학점제 운용을 위한 지원방안

교육부는 마이스터고가 올해 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만큼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학교가 단계적으로 학점제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전국 마이스터고 39개교에서 지난 2년간 학점제를 시범 운영하였다. 올해는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를 연구·선도

- 51개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 전공심화 이수, 타 학과 부전공 가능
-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밀착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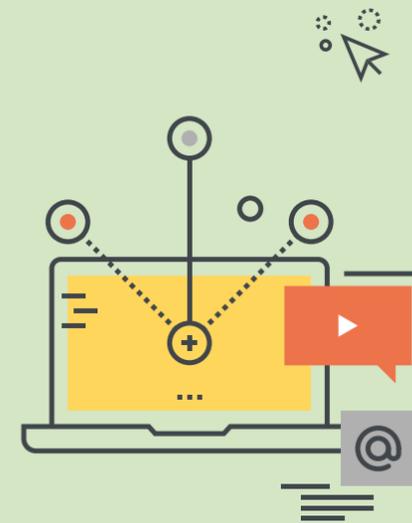
둘째 학교의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과목선택 과정과 학생마다 다른 시간표 관리 등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학생 수강신청 시스템'을 직업계고의 특성에 맞추어 고도화한다. 세부 전공코스, 부전공 등 일반고와는 다른 특성을 '학생 수강신청 시스템'에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 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학교의 교사·강사 등의 인력풀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강사 수급 지원, 현장 중심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교실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실습소를 개선·확충하는 등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도 힘쓴다.

넷째 학점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긍정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마이스터고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 연수, 간담회 등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생에 학점제는 더욱 절실한 제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에서 직업 세계를 준비하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스스로 찾아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여 미래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특히 졸업 후 바로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학점제가 더욱 절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점제가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학교, 교육수요자, 지역사회 등의 범사회적 공동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②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준비

학생 안전 최우선 고려, 방역당국·전문가와 대응책 마련

글 이순이 편집장

교육부는 지난 5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순차적인 등교개학을 준비해 왔으나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일을 일주일씩 미룬다고 발표했다.

[표1] 순차적 등교수업 시작 시기

5월 20일(수) ~
고3,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우선 등교)

5월 27일(수) ~
고2/중3/초1~2/유치원 등교

6월 3일(수) ~
고1/중2/초3~4 등교

6월 8일(월) ~
중1/초5~6 등교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기를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무한정 미루기보다는 감염병 추이를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 시도교육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5월 4일 등교수업을 결정하였으나, 이번 이태원 감염확산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지역감염 정도가 심해 5월 4일 등교수업 일정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3,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5월 20일(수) 우선 등교하며 고2/중3/초1~2/유치원은 5월 27일(수),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수),

중1/초5~6학년은 6월 8일(월)에 등교한다. 5월 14일 예정되어 있던 고3 학력평가도 5월 20일 등교개학 이후로 미뤄졌다.

등교수업 대비 학사운영, 학교방역 준비상황

교육부는 그동안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학사운영을 비롯하여 방역 등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해 왔다. 먼저, 지역별로 코로나19 감염병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학사운영 방법은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여건에 따라서 학년·학급별로 시차를 두고 등교하거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하는 등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수학교 또한, 유·초·중·고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따르되, 시·도 및 학교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등교수업을 대비하여 학교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해 왔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는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교육부는 향후 모든 학교가 등교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

- 이태원 감염확산 우려로 등교개학 일주일 미뤄져
- 등교수업 위한 철저한 방역, 안전한 환경조성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으로 전환



록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안내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학생·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1주일 전부터 시행)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가족의 해외 여행력, 자가격리 유무' 등은 진단항목에 보장하였다. 교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며,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검사결과 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신속하게 귀가조치가 이뤄지며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한 경우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며, 기저질환 등의 고위험군 학생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표] 각급 학교방역 준비 상황(2020.4.22. 기준)

일시적 관찰실 설치	전문업체 특별소독	등교 1주전 가정 내 건강상태 확인 등 학부모 안내	교실 책상 일정 거리유지	체온계 (학급당 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 설치	
					학교 수	설치대수
99.6%	99.8%	99.9%	99.8%	97.3%	6,964교	7,362대

감염병 전문가 현장간담회 참석, 의견 반영

한편, 등교수업 시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월 29일에는 서울 무학여고(교장 박광훈)를 방문하여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이현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이사), 박지혁 동국대 의전원 교수(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등 감염병 전문가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도 진행했다.

당시 감염병 전문가들은 "등교개학에 대비해 교육당국이 준비를 잘 해오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보건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내 역할분담을 통한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과 과밀학급 등에 간호사 등 의료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각종 가이드라인은 방역당국과 감염

병 전문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김천여고(교장 안중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역할분담과 행동 요령을 점검하는 모의훈련에 참여하였다. 유 부총리는 “등교수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내에서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하므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운영하며, 종합상황반은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상황실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상시 대응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교수업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19 이태원 감염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부는 향후, 국민과 학부모, 학생이 가지는 불안감 내지는 인식의 정도를 고려해서 향후 등교 개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 본 기사는 교육부 5월 11일 발표 내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④ 학교방역 준비사항(서울 무학여고 사례)



① 학생들이 선을 따라 중앙현관에 들어서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한다.



②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 일시적관찰실에서 대기한다.



③ 등교수업에 대비한 교실 자리배치도. (왼쪽) 기존에는 2개의 책상을 붙여놓았다면, (오른쪽) 향후 책상을 1개씩 거리를 두고 배치할 계획이다.



④ 급식실에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한 칸씩 띄어 앉기를 실천할 계획이다.



⑤ 학급별로 방역물품을 준비하여 등교수업에 대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연심 보건교사로부터 방역물품 준비상황을 듣고 있다.



⑥ 유은혜 부총리와 방역전문가들이 무학여고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즐거로운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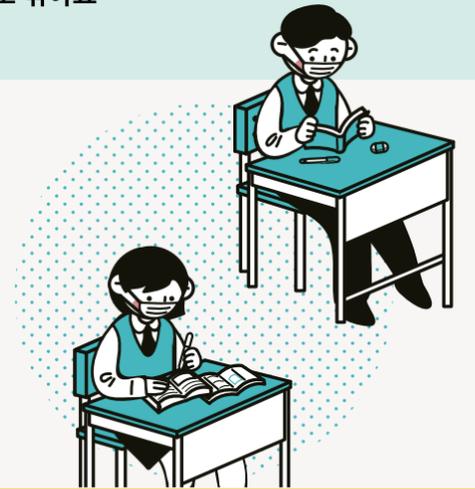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내 책상은 수시로 닦아요

- 나와 친구의 건강을 위해 수시로 창문을 열어요
특히, 등교 직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 시간에는 꼭!
- 내 책상은 내가 직접 수시로 닦아요

학교생활 이렇게 해요

- 마스크는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항상 쓰도록 해요
- 손은 자주 자주 씻어요
- 기침이 나올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요
- 서로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은 조심해야 해요
- 개인 물품은 본인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급식 시간에는 친구를 배려해요

- 식당에서는 앞 친구와 양팔간격으로 줄을 서요
- 밥을 먹으면서 말하지 않아요
- 식사 직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 후에는 바로 착용해요

몸이 아플 때는 선생님께 말해요

-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콧물이 나오면 바로 말해요
- 확진자 친구가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고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부산시교육청 _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매년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다문화 학생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137,225명으로 전년도보다 12.3% 증가했다. 부산에서도 다문화 학생 수가 2014년 2,770명에서 2019년 5,740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 내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글 양지선 기자



66
2017년 개소한
센터에는
부산지역 내
60여 개 학교,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방문해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받았다.

99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문은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곳에서는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함께 일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상호문화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공동체 전체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 2017년 개소한 센터에는 그동안 부산지역 내 60여 개 학교,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방문해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받았다. 부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지역 내 다문화 교육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과 학부모가 센터에 직접 찾아와 수업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현재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된 '도담도담 한국어교실'은 초·중·고 중도 입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한국어교실이다. 매주 2~3회 2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은 줌(Zoom)을 이용해 화상수업으로 이뤄진다.

한국어교실 운영을 담당하는 박현지 장학사는 “온라인 개학 관련 안내사항과 온라인 학습 매뉴얼 도움자료를 11개 언어로 번역해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라며 “처음에는 원격수업을 낯설어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익숙하게 수업에 참여한다.”라고 했다.

5월 9일부터는 '세계언어교실'과 '토요 가족 상호문화 아카데미'도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토요일에 진행되는 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 가족 간 소통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세계언어교실에는 올해 중국어반, 일본어반, 몽골어반, 베트남어반이 개설됐다. 강사는 전부 각 나라 출신 이주여성이다. 덕분에

123_ 다문화 감수성 교실에서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각국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순서대로 캄보디아 전통요리 만들기, 베트남 전통모자 만들기, 키르기스스탄 문화 체험



학생들은 언어와 함께 나라별 문화를 익힐 수 있고,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됐다.

한국어교실·문화체험 등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토요 가족 상호문화 아카데미 시간에는 작년까지 나라별 전통음식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주가 됐으나, 올해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통놀이, 공예체험을 구성했다. 센터에서 각 가정에 택배로 미리 준비물을 보내 주고,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중국 탈 만들기, 몽골 비즈공예 목걸이 만들기, 베트남 고무줄놀이 배워보기 등의 콘텐츠가 예정돼 있다.

박진현 장학사는 “다른 문화에 대해 낯설고 거리감을 느꼈던 학생들의 인식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다.”라며 “올해는 부득이하게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참여율이 이전과 같진 않지만, 가정에서도 수업을 듣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급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실(체험과 놀이를 통해 각국 생활·문화 이해하기)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학교생활 상담, 통·번역 등 수업지원) △대학생 멘토링(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지도) △교원 상호문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 간담회(교육지원 안내 및 정보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한 멘토링, 상담 등의 지원은 현재 병행하고, 다문화 감수성 교실 등 방문형 프로그램은 올해 2학기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박현지 장학사는 “다문화 학생들이 공교육에 적응해서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가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㉔

Mini Interview



이성기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실 강사

고등학교 영어 교사 출신인 이성기 강사는 퇴직 후 한국어 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지난해부터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본래 해외봉사를 준비했던 그는 국내 중도입국자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한국에 머물며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전체 15명의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1주일에 5번, 하루 2시간씩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강사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첫 도전이었다. 이 강사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원격수업을 신기해하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덕분에 아이들이 더 흥미를 보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다.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지명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게 하기도 하고, 글쓰기 과제도 나간다. 1년간 한국어교실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대화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는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유대관계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수업 외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간다.

그는 “중도입국학생은 언어만 서툰 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며 “센터에 오고 한국어교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EDUCATION NEWS

01 한국의 원격수업 사례, 해외 공유·전파

- ① UAE 교육부 장관 요청으로 원격회담 개최
- ② 코로나19 극복 위해 양국 교육협력 강화하기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월 2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교육부장관 후세인 이브라힘 알 하마디의 요청으로 원격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우수한 교육 역량을 토대로 전국 단위의 원격교육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UAE의 원격교육 시행에 참고하고자 우리나라의 경험과 사례 공유를 요청했다. 이 회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원격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교육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무엇보다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높은 정보기기 활용 역량과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온라인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반(플랫폼)을 사전에 확충하고,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통신비(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통한 원격수업 운영 기반 구축 과정을 소개했다.

아울러 '1만 커뮤니티(1학교 1대표 교원 모임)'와 교사학습공동체 등 자발적 커뮤니티와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한 교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강화, 원격교육 취약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민·관·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원격수업 신속 지원 등에 역점에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양국 간 교사들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더 나은 원격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관계 부처 및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여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한국형 원격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표] 우리나라 원격수업 운영 현황

① 다양한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기기 지원

- 다양한 플랫폼의 사전 구축으로 원격수업의 빠른 현장 적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기기대여·인터넷 지원 및 원격수업 취약계층 지원

② 교원의 자발적 커뮤니티 통한 ICT 역량 강화

- (교사학습공동체) 자발적 교사 연구 모임, (1만 커뮤니티) 1학교 1대표 교원 모임

③ 세계 상위 수준의 학생 정보 소양 역량

- 컴퓨터·정보 소양 2위, 컴퓨팅 사고력 1위(ICILS, 2018)
- 가구 인터넷 접속률 99.7%, 10대 청소년 99.9% 인터넷 활용(과기정통부, 2019)

④ 민·관·기업 등 유기적 협력으로 원격수업 신속 지원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통계청, 시청자미디어재단, 통신3사(KT, LG U+, SKT), LG, 삼성, 기타 에듀테크 국내 민간기업(62개) 등 협업

EDUCATION
NEWS

02 교육부, 대학생 위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

- ① 학자금 대출 금리 2학기(7월)에 1.85%로 인하
- ② 장기 연체 이자 대폭 감면해 저금리 혜택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

첫째,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약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II 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셋째,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4월 27일부터 시행했다.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넷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03 올해 대학 입학금 전년 대비 27.6% 감소

- ①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②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 소폭 상승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29일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는 총 416개 대학의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등록금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2019년 1학기(66.6%)보다 0.1%p 상승했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6.8%로 2019년 1학기(35.9%)보다 0.9%p 상승했다.

2020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 대상 196개교 중 191개교(97.4%)가 동결(181개교) 또는 인하(10개교)했다. 2020학년도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연간 672만 66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 9,300원 증가했으며, 의학·공학 계열의 입학 정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2020학년도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 입학금은 27만 6,20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5,400원(27.6%) 감소했다. 국공립대학(40개교)은 2018학년도에 입학금을 폐지했고, 사립대학(156개교)의 평균 입학금(35만 7,800원)은 전년 대비 27.6% 감소하였으며 2022학년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04 학생부 공금증, 한 번에 해결하세요

- ①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개통
- ② 온라인·유선 상담으로 민원 및 공금증 해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대한 공금증과 관련 자료를 한 번에 해결·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https://star.moe.go.kr)'를 개통했다.

포털 내 게시판과 1대 1 채팅 문의를 통해 학생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원과 유선상담도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접수된 민원·질의 및 답변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교사 또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는 학생부 대필, 허위 기재 및 부당정정 등 불법·부적정 사례를 예방해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초·중·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05 초등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서비스 '주니어 커리어넷' 개시



교육부는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주니어 커리어넷(www.career.go.kr/jr/)'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니어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아를 이해하는 '나를 알아보아요',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며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정보를 찾아봐요', 진로상담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고민이 있어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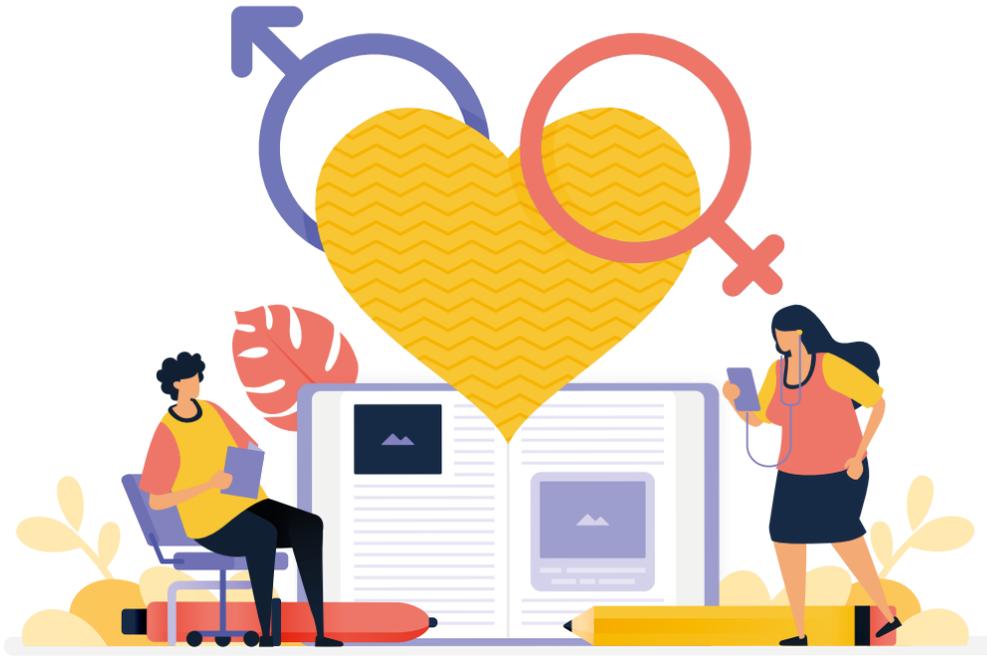
06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①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유지 확보
- ②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

교육부는 4월 29일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한 시대

글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가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많고 20대의 젊은 청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을 주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뭘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미디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경험하는 성문화

미국과 캐나다에서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TV 보급률과 강력범죄 발생률을 비교한 적이 있다. 두 나라에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TV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15년 정도 차이를 두고 정비례하여 강력범죄가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에 TV가 보급되지 않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TV와 강력범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범죄,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탁틴내일에서 지원한 사례를 보면 성폭력 피해 내용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건수가 2016년 149건에서 2018년 247건으로 증가하였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을 소비하고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중심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교가 성인지적 인권 교육, 포괄적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성범죄에서 카메라 촬영이 수반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촬영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소년도 있다. 인터넷의 폭력적인 문화는 청소년의 범죄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가정법원, 학교 등에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탁틴내일에 의뢰한 사례 중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2014년 39건에서 2018년 86건으로 증가하였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같은 기간 35건에서 188건으로 증가하여 영상 제작 배포와 관련된 범죄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공기처럼 존재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유용한 내용도 많지만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이 재현되는 영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심지어는 ‘패드립’이라 하여 엄마에 대한 성적 표현과 욕설,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표현들이다. 우리나라가 역차별 사회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나 영상도 쉽게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협하게 해석하는 가짜 뉴스도 많다.

남자 청소년들이 역차별 주장에 대해 쉽게 공감하는 이유는 생활 속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하니가 무거운 것도 남성이 들어야 하고 여성에게 저주는 것이 남자답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존재라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경험은 여성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크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통제를,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통제를 접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개인의 경험이 사회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는 역차별 사회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남자 청소년들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성별 격차가 큰 사회로 평가되고 있다. 해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는 조사대상 140여 개국 중에서 늘 110위대에 머물고 있고 유리천장지수도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함부로 표현해선 안 된다. 남자아이들이 장난치고 괴롭히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니 이해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함이나 폭력을 참고 견디도록 길러진다. 드라마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거나 듣는 건 여성은 사랑받는 존재여야 하고 예쁜 외모와 착한 심성으로 멋진 남성에게 선택되는 것이 중요한 존재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운명의 주인으로 삶을 개척해가는 주체적인 여성이

예전처럼 권고 수준으로는 아이들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교과과정 개편 및 관련 교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많아지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표현하는 드라마는 인기를 얻기 어려워져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여성은 성적 대상이 된다. 여성을 상품화하여 전시하고 거래한다. 여성을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이 존재하며 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건 이러한 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문화에서 남학생들은 여성을 성적 존재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남자의 성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과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심지어는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것을 성인들의 놀 권리,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름 붙이고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 성매매, 불법 음란물을 즐기고 있음을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 여성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였지만 무시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성적인 친밀함 뿐만 아니라 연애를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낀다.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평등한 관계 맺기 교육해야

성을 소비하고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상황에

서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중심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교가 성인지적 인권 교육, 포괄적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따라가기도 버거운 것 같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연애 혹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무엇인지, 성과 관련하여 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의사소통 기술, 몸에 대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외모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 등이다. 대중매체에서는 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회 문화적인 성은 어떤지, 법은 성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폭넓게 사고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특히 ‘동의’라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동의’ 여부를 묻거나 대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문화, 사회적인 압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여성은 왜 ‘성’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지, 박력 있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남자답다고 여기는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토론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권력의 차이로 인해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한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사람은 살면서 성과 관련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성교육은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의사표현과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과 권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필요

다행히도 지난 4월 2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제는 대책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 많아졌다. 인권 교육, 안전 교육, 성평등 교육, 성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인터넷 예절 교육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교육이 중요하다고 언급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에 교육을 하다 보니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성교육도 1년에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성과 관련한 지식, 성착취로부터 안전한 인터넷, 연애, 데이트, 몸, 임신, 피임, 성 권리 등 다루어야 할 주제가 많고 주제마다 연령 및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성교육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이 가능한 시수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성교육 교사의 자격을 갖추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전처럼 권고 수준으로는 아이들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교과과정 개편 및 관련 교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부터 폐기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고 실현 가능하게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핀테크 분야

IT·모바일 기술이 가져온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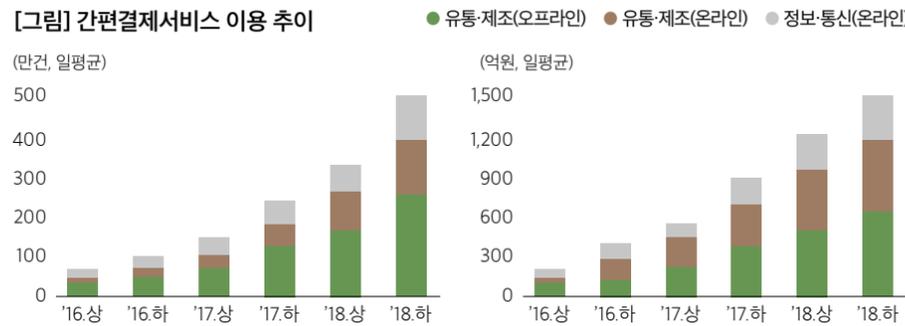


국내외 동향

핀테크(Fin 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금융서비스와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 창구에서 행해지던 업무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 전자금융 서비스로 대체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금·대출·자산관리·결제·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외에도 관련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의사 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등 금융 시스템의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도 핀테크의 한 부분이다.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1년 1,011억 달러에서 2017년 7,214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산업 투자규모는 2008년 9.3억 달러에서 2017년 122.1억 달러로 10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다. 핀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페이(pay)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금융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I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활발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금융거래(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기준) 가운데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는 91.2%에 달했으며, 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거래는 8.8%에 불과했다. 또한,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2016년 71.4억 원에서 2018년 1조 455억원 수준으로 약 14.6배 증가했다.



출처: 한국은행(2018)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해외 핀테크 산업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등이 핀테크 투자를 확대하며 고속 성장하고 있다.

-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술과 월가의 뛰어난 금융 인프라 융합하여 성장.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508억 달러(전체의 40.5%)로 전 세계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정부 적극 지원. 투자 규모는 17억 달러('13) → 660억 달러('16) → 223억 달러('18)로 브렉시트 등으로 '16~'17년에는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현재는 반등
- 중국**: 금융규제 완화 등 지원정책 추진하고 기존의 금융인프라를 핀테크로 대체하면서 크게 성장 중에 있음. '13년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었으나 '14년에는 14%(64억 달러), '18년에는 24.3%(305억 달러)를 차지

산업전망

IT 기술의 발달로 금융업에서 창구 업무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개척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신규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T·금융의 융합산업인 핀테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크다. 정부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허용,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 등 역동적인 금융혁신 정책과 더불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시행, 혁신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소비자 가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2018 대한민국 핀테크기업편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은 대략 500개로 추산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의 핀테크 R&D에 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핀테크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IT 기업들과 금융사들의 M&A 및 기술제휴 등이 확대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어서 빨리 코로나의 매서운 강풍이 물러가고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릇파릇 꽃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소확행’ 찾으러 갔다 ‘대확행’ 하고 온 교생실습

글 박찬희 명예기자(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3학년)

나무에 피어있던 여린 꽃들이 어느새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고 연초록 잎들이 소복소복 돌아나는 5월이다. 이맘때쯤이면 교대생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교생실습의 기간이 훌쩍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는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도 계속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자니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학교 오실 거죠?”라고 말하며 아쉬워하던 학생들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 묵직하게 지나간다.

날씨가 쌀쌀했던 탓일까,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님이 딸 교생실습 간다고 장만해주신 옷이 몸에 아직 익지 않아서였을까. 나는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실습을 시작했다. 학교 선생님들과 반가운 첫 만남을

뒤로하고, 나와 교생선생님들은 배정받은 교실로 발걸음을 향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배의 충고를 잊지 않았던 나는 입꼬리를 한껏 올려 교실 문을 살짝 연다. 색연필로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이 우리를 발견하더니 깜짝 놀라며 짹과 속닥속닥 이야기한다. 몇몇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자 나를 향해 싱긋 웃어준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뒤이어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3학년 2반에는 세 명의 인기스타가 탄생했다. “선생님이에요? 몇 살이에요? 내일도 와요? 왜 왔어요? 언제 가요? 선생님 입이 로봇 같아요!” 등 눈을 동그랗게 뜨며 궁금한 걸 쏟아내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느라 나를 비롯한 교생선생님들이 애를 먹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생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급식실까지 인도하고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도 무장해제 되어 TMI(too much information)를 남발했다. 이후 교생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한다. 나는 그날 무조건 내일부터 운동화를 신고 오리라 다짐했다. 아이들과의 수업이 끝나면 교생선생님들은 수업 일지를 작성하고 담임 선생님과 담소를 나눈다. “매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9시 되면 잘 준비해요. 호호호” 하시던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을 위해 전날부터 컨디션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교생선생님들이 점심을 먹고 운동장 가는 게 익숙해질 무렵이면, 곧 아이들과 이별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의 행동이 왜인지 모르게 수상했다. “선생님 사실 말할 게 있는데요~”라고 하면서 또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우면서 어색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이별식을 준비했던 것이다. 아이들은 전날 우리를 위해 편지를 쓰고 그림도 그려주었다. 교생선생님들이 아쉬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에게 이별 인사를 하자 아이들도 울고, 또 아이들이 우는 모습에 담임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셨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쓴 그림과 글을 보니 아이들과 있었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잔잔하게 흐른다.

교생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바로 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었다.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정말 그래요?”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다음날 내가 좋아하는 시를 그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오리아 마운틴 트리머의 <초대>라는 시다.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 (중략) 나는 당신이 날마다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시가 아이에게 좀 어려웠지만,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니 나의 진심은 전달된 것 같았다.

두 번의 교생실습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생실습이 나에게 매년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내가 그 기간 동안 교육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일까. 아이들과의 만남을 더욱 진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질문도 성숙해지고 깊어졌다. 또한 아이들의 질문이 나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고민하게 만들며 나를 더욱 성장시키기도 한다. 교생실습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생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어서 빨리 코로나의 매서운 강풍이 물러가고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릇파릇 꽃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②

5.16: 하나의 사건, 여러 개의 이름

글 강응천 도서출판 문사철 대표(역사저술가)

혁명의 반대편에 있는 정변의 또 다른 측면,
즉 쿠데타가 5.16의 의도와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66

일반적으로
혁명은 긍정적,
쿠데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정변은 의도나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일 수 있다.
5.16 군사정변은
혁명이 아닌
쿠데타였다는
사실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

99

5.16

1961년 5월 15일 밤 10시, 제2군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육사 2기)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군 지휘관이 영등포의 제6관구 사령부에 모였다. 그들의 목적은 민주당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주력부대로 점찍었던 육군 30·33사단이 움직이지 않자 그들은 김포의 해병여단과 공수단 병력만으로 작전을 감행했다. 5월 16일 새벽 3시 30분, 박정희 소장이 직접 지휘하는 해병여단과 공수단 병력 2,000여 명은 한강 인도교 남단인 노량진에 집결했다. 그들은 불과 30분 만에 50명의 헌병 저지선을 뚫고 용산의 육군본부에 진입해 군의 심장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병력을 분산 파견해 내각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주요 기관을 장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공식적으로 '5.16 군사정변'이라 불린다. 군인들이 일으킨 정치적 변란이라는 뜻이다.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들어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1884년에 김옥균 등의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은 부정적인 평가만 받고 있지 않다. 보는 사람에 따라 자주적 근대화를 앞당기려 했던 긍정적 시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정변'이란 말 자체는 의도나 성격에 대해 중립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도 정변을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으로 풀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은 긍정적, 쿠데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정변은 의도나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뜻이다.

5.16 군사정변의 주역들에게 이 사건은 혁명이었다.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최초의 사건은 4.19였다. 5.16 주도 세력은 바로 그 4.19혁명을 계승하겠다는 자신들의 거사를 합리화했다. 그들은 4.19 정신을 저버린 기성정치의 부패와 무능을 응징하고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구악(舊惡)을 일소하며 경제를 재건한다는 등의 다섯 가지 혁명 공약도 발표했다.

실제로 5.16 직후에는 적지 않은 국민이 이를 반겼다. 심지어 4.19혁명의 주도 세력 중 하나였던 서울대 총학생회도 지지 성명을 냈다. 혁신계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 민족주의 계열 잡지인 <사상계>의 장준하 사장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진보 세력 일각에서 5.16을 반긴 것은 4.19혁명 이후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의 제2공화국 정부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5.16 주도 세력이 혼란을 극복하고 4.19혁명의 정신을 되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러나 박정희 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거사 초기에 취했던 일련의 혁신 조치를 거둬들였다. 그가 군복을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만든 민주공화당은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신악(新惡)이 구악을 뺏친다.'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4.19혁명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로 내달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다시금 반독재 투쟁의 험난한 길로 나서야 했고, 조용수 사장과 장준하 사장은 기대를 저버린 반혁명 정권에 맞서다 목숨을 잃어야 했다.

약속을 깨고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목숨을 잃을 때까지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의 죽음과 함께 '5.16혁명'이라는 이름도 공식적인 재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혁명의 반대편에 있는 정변의 또 다른 측면, 즉 쿠데타가 5.16의 의도와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체제의 변혁을 의미하는 혁명과 달리 쿠데타는 '지배 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정권 찬탈'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5.16 군사정변은 결코 4.19를 계승해 사회 변혁을 이루어낸 혁명이 아니었다. 그와 반대로 4.19혁명이 초래한 지배 계급의 위기를 무력으로 해소하고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였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의 전진과 함께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 ㉠

도를 지나친 학생·학부모 민원, 어떡하죠?

글 김서규 경기대 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교사의 질문

계속 민원을 넣는 부모와 아이 때문에 너무 지칩니다. 이 아이는 악기연주 수행평가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를 할 뿐, 저의 거듭되는 연주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노력 요함'이라는 결과를 받는다고 했지만, 아랑곳없이 얘기만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학기 말 성적표를 받아본 아이의 엄마가 '이 성적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아이가 억울해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계속 억울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학기에는 '도저히 담임을 믿을 수 없으니 평가계획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이는 상담 중에 '엄마가 선생님이 공정하지 않으니 이번 학년은 버리라고 했다.' 하고, 교실에서 뛰다가 옷이 책상에 걸려서 찢어지자 '학교에서 책상 관리를 잘못한 거니까. 옷을 변상해야 한다.'라는 등, 엄마의 입이 아이의 입이 되고 아이의 입이 엄마의 입이 되어 사사건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민원을 넣고, 저와 상담을 하면 몇 시간이고 따지는데, 주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꼬리를 잡는 언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인은 에코 챔버(echo chamber) 현상 때문일 수 있다.

선생님의 기억에 따르면, 아이와 문제가 생긴 최초 장면은 1학기 수행평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1학기 성적표를 보고 '성적이 왜 이러니?' 했을 때, 아이가 '억울하다.'라고 주장했고, 어머니는 아이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해 '우리 애가 억울했구나.' 하는 심증을 굳혔다면,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에게 의해서 '담임은 불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동질의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쉬운데, 이것을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첫째 해법은 듣기다.

먼저 엄마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느 대목에서 사실을 왜곡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앞줄에 있는 친구에게 가사와 계명을 잊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떠드는 애 취급하다가 짜증을 냈다면서요. 우리 애는 누명 쓰고 기회도 뺏겼어요.'라고 하면 어디서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오해했으면 이해를 구하시고, 선생님이 실수하셨으면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학부모가 오해하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느라 학부모의 억울한 심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도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기 때문에 서로 나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비록 선생님이 정당하더라도, 이처럼 이해를 구하는 자세로 어머니를 대하면 서로 체면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 좋게 끝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 ① **관계 유지의 말을 한다.**
"이런 일로 통화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성적을 바꿔주진 못해도,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 ② **먼저 학부모의 항의를 들어본다.**
"무엇이든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혹시 다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다.
- ③ **양승법(win-win method)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① **이해해 주기**
"아드님은 떠든 게 아니라, 친구에게 가사와 계명을 물어본 거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2번이나 떠들지 말라고 주의 주고, 제한 시간 내에 빨리 연주하라고 재촉했던 것 같네요.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② **선생님의 의견 제시**
"그런데, 수행평가 시간에 남에게 물어보면 부정행위가 되고, 제한 시간에 연주하지 않으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 ③ **다시 이해해 주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거듭 죄송합니다."

둘째 해법은 공적 근거다.

중요한 사건은 공적 일지에 기록(녹음·촬영 가능)하고, 학부모가 증거를 원할 때, 제시하면 피차 시비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 음악 수행평가. 12번 장철수, 리코더 불기에서 앞 좌석 이은수와 3분간 잡담, 2회 주의 주었으나 불응하고 제한 시간 내 수행하지 않아서 노력 요함을 부여함.'이라는 기록을 제시하면 몇 시간씩 언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부모가 수행평가 기준을 원하면 알려 드리고, 아이가 교실에서 책상에 걸려서 옷 찢긴 것을 배상해달라고 하면, '책상 모서리에 옷이 걸려서 찢어진 것에 대한 배상 규정은 아직 없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주관적인 말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FOCUS 01

다함께 달리자! 광주 빛고을독서마라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정지가 생활화된 시기, 빛고을 광주에서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다. 3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되는 ‘빛고을독서마라톤’이다. 이 대회는 일반적으로 42.195km 마라톤 구간을 달리는 정형화 된 달리기 코스라 아니라 매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후 자신만의 독서일지를 만들어가는 독서활동기록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책 1쪽당 마라톤 1m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써 15회를 맞는 빛고을독서마라톤 대회는 광주의 학생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분야의 책이 마라톤 도서로 인정된다. 참가는 빛고을독서마라톤 홈페이지(<http://bookmarathon.ge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도 자유롭게 독서일지 작성이 가능하다. 매일매일 일정량의 독서 후 도서명, 저자, 쪽수, 감상평을 입력하면 당일 읽은 독서로 인정된다.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하루 최대 500쪽까지로 쪽수는 제한하고 있다.

빛고을독서마라톤은 △거북이(3km) △악어(5km) △토끼(10km) △타조(15km) △사자(21.097km) △호랑이(31.646km) △월계관(42.195km)까지 총 7구간이다. 구간마다 자신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달라지므로 최소기준 3천 쪽부터는 거북이, 악어, 토끼 등 다양한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 월계관은 마라톤을 상징하는 숫자인 42,195쪽까지 읽으면 달성할 수 있다. 독서일지 누적 기록에 따라 최종 완주 구간이 결정되며,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증이 수여된다.

독서마라톤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는 5학년 윤모 양은 “온라인 개학 후 스스로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기는 하지만 매일 컴퓨터로 독서마라톤 일지를 기록하다 보니 확실히 독서량은 늘어난 거 같다.”라며 독서마라톤 완주까지 열심히 달려보겠다.”라고 말했다.

빛고을독서마라톤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시기 더욱 주목을 받는 독서활동이다. 자신만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며, 더불어 1년간의 독서 일지를 스스로 완성해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든 시기이다. 집에만 있을을 괴로워하지 말고 나만의 독서기록장을 작성하며 의미 있는 5월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FOCUS 02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어 밤을 새우기도 해요”

학생들 반응은 효과 빠른 피로회복제

오전 8시 20분. 영어교실에 도착해 창문을 열어 잠시 환기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가장 먼저 유튜브에 접속한다. 전날 올린 온라인 영어 수업 동영상들 아이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단 후 온라인 수업 준비를 시작한다. 일면 식도 없지만 “Where are you from?(넌 어디에서 왔니?)”단원의 수업을 들은 학생이 서툰 영어로 “i am from korea”라고 댓글을 달면 기특하기만 하다. “Good job! (잘했어!)”라는 칭찬을 학생에게 아끼지 않으면서도 “i am from Korea”라는 댓글로 은근하게 틀린 철자도 고쳐준다. 이러한 정성 덕분일까, 유튜브에 올린 온라인 영어수업 동영상은 일주일만에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봤다. 반면, 수업을 90% 영어로 진행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한국어 선생님도 없기에 ‘하나도 못 알아들것어요’라는 댓글을 볼 땐 한글 자막을 추가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동료 교사와 수업 나눔에도 참여한다.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여 충남 예산에 있는 사립초등학교(교장 인정인)가 원격수업 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원어민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 준비에 동참했다. 가뜰이나 외출도 못한 채 종일 모니터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부러 과장될 만큼이나 우렁차게 “Hello Everyone!”이라고 마이크에 대고 녹음을 한다.

저작권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수업자료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손수 제작한다. 영상제작은 처음이지만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편집 프로그램도 다운받아 유튜브를 보며 익혔다. 3~6학년 전과목의 동영상을 만드느라 때론 밤을 새우기도 하지만, 다음날 동영상 댓글에 달린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도 영어수업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빨리빨리 문화로 코로나19도 빨리 이겨내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6년차가 되는 저스틴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의 발빠른 대처가 놀랍다며 “Amazing!”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사재기를 하지 않고도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마스크도 주5일제 정책에 따라 웃돈을 주지 않고도 살 수 있어 만족해한다. 그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로 코로나19도 빨리 이겨낼 것 같다.”라며 하루빨리 정상개학이 이뤄져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길 희망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경수정 명예기자

FOCUS 03

코로나19 사태, 기회일까? 위기일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CT 강대국이라고 불릴 만큼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빠르게 발전하는 이동통신 기술 등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차세대 첨단 기술에 발맞추어 ICT 기술 분야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 중 직장인들에게는 비대면 업무환경이 권장되어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를 통하여 회사 업무를 보기도 하고, 대부분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여 원격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각양각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추가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만큼 현재 교육 분야에서 가지는 문제점들을 ICT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정보통신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형태인 '에듀테크(또는 에드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인 걸까? 기회인 걸까? '코로나' 사태 속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시스템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색해야 하고, 제안된 기술이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하여 정부는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가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성한 명예기자

FOCUS 04

어버이날에 숨겨진 아픈 역사를 아시나요?



어버이날은 원래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소년운동 단체에서 소년 소녀들이 어머니의 고마움을 기리고 위로하는 날을 맞이하며 '어머니날'을 만들고 행사를 열었는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시기가 1928년 5월 둘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후 1955년 8월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1956년 5월 8일 제1회 어머니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어머니날'이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날로 정해진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10만 명가량의 전쟁고아, 30만 명이 넘는 전쟁미망인과 그 사람들이 홀몸으로 돌보아야 할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어머니날'을 만든 까닭은 어머니인 여성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모든 여성에게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1937년에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어머니의 책임보다 자녀들의 효를 행하는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 사진 및 내용 인용 출처 : '10대와 통하는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지역 고교 교육의 혁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 ✓ 시·도 공모를 통해 15개 시·도, 24개 선도지구 지원 대상 선정
- ✓ 8개 도(道) 내 교육소외지역 대상 학점제형 교육여건 개선 집중 지원
- ✓ 교육부 특교 220억원,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대응투자 282억원 지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사업이란?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 지역 공동체 간 교육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역량 강화 등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다양한 과목개설 여건 조성
- 온라인 공동교육 기반 시설 구축, 학생 통학 여건 개선, 교·강사 확충 등

2025년 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